

## 大韓言論人會 새 도약대 오르다

### 제20대 李炳大회장 체제 출범

#### 정기총회 회장 선거

|      |     |      |
|------|-----|------|
| 개표결과 | 이병대 | 227표 |
|      | 박기병 | 131표 |

대한언론인회는 1월 22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이병대 전 부회장을 제2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우 358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이병대 후보 227표, 박기병 후보 131표로 이병대 후보가 당선됐다.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안팎을 입주의 여지없이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김은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회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퇴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정운중 상임이사의 성원보고와 2015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 2015년도 회무보고, 정기정 감사의 감사보고, 2015년도 결산보고, 2016년도 예산(일반회계 87,027,196원, 특별회계 69,183,317원)은 새 집행부에 위임하자는 동의가 있어 일괄 처리했다.

정운중 이사는 이날 회무보고에서 “대한언론인회 2015년은 김은구 회장이 취임 초 약속했던 퇴직언론인실태조사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되었고 본회 예산으로 실시되던 문화탐방 행사를 언론재단 지원으로 실시함으로써 본회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말하고 ‘언론인의 길 그대 그 현장 못다한 이야기’ (5집) 발간, 국방부브리핑 룸에 6·25참전언론인 명패를 헌액 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업수행이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20대회장 선거는 신우식 고문(전 서울신문 사장·전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았고 선거관리위원회 한영섭 위원장 주재로 입후보자 소개발표, 양측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 소개에 이어 투·개표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총회는 또한 박응칠 전 KBS 해설위원, 이태영 전 중앙일보 색션국장을 감사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는 이병대 신임회장에게 일임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면에 집행부 명단)

이병대 신임회장은 당선소감(취임사



대한언론인회 역대 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왼쪽부터 김은구 명예회장, 신우식 고문, 이병대 신임회장, 제재형 고문, 홍원기 고문, 한영섭 선거관리위원장)



입주의 여지없이 참석한 회우들이 질서정연하게 투표에 임하고 있다.

#### 李炳大 신임회장, 본회에 1,000만원 기탁

신임 이병대 회장은 1일 대한언론인회에 1천만원을 기탁했다.

신임 이 회장은 이 헌금이 종잡돈이 되어 대한언론인회가 흑자 언론

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헌금을 계기로 많은 독지회우들의 찬조가 잇따르길 기대한다.

#### 매월 셋째주 木요일 침-뜸 진료 실시

3월부터... 올 상반기 건강진료-3월 정신건강

대한언론인회는 오는 3월 17일(목)부터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한방 침·뜸 진료를 실시한다. 이번 3월 첫 진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데 장소는 3월 회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진료를 받고자 하는 회우는 미리 사무실에 전화로 접수 해 주면 된다.

대한언론인회는 금년 상반기에 洋·韓方 의료팀을 초청, 회우들의 건강진료 및 상담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3월 11일(금) 정신건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사 및 시간은 3월 회보에 밝힐 예정이다.

별항 참조)에서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면서 “세상이 알아주는 대한언론인회, 흑자 언론인회, 복지 언론인회, 역동적

인 언론인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병대 신임회장은 1941년생으로 동아일보 기자, KBS스포츠 국장, 해설



당선소감을 밝히는 이병대 신임회장.

#### 이병대 회장 약력

생년월일 : 1941년 11월 10일 생

주 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LG아파

트 210-1201

#### 〈학력 및 경력〉

0-서울대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0-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언론과

정 수료

0-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고위경

영자과정 수료

0-동아일보 입사(1965)

0-한국방송공사(KBS)입사(1980)

0-KBS 안동방송국장

0-KBS 보도제작국장

0-KBS 제주방송총국장

0-KBS 스포츠국장

0-KBS 사회교육국장

0-KBS 해설위원

0-한양대 동문회관 웨딩프라자

회장

0-한국방송기자클럽 감사

0-대한언론인회 이사(2002)

0-동아일보 사우회(동우회)

이사, 동 부회장

0-동우회 감사

0-대한언론인회 부회장

0-한양대 경영대 AMP총동문

회 회장

위원,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P]

글 · 정운중 상임이사

사진 · 강두모 회우

# '모두가 함께하는 大韓言論人會' 다짐

## 이병대 20대 회장 취임사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내편 네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말씀 드리는 순간 실내에 터져나온 공감의 우렁찬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서 울립니다.

대한언론인회는 우리 구성원들의 친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편을 가를 수도 갈라질 수도 없습니다. 강력한 언론인회, 복지언론인회, 흑자언론인회, 역동적인 언론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그러나 착실하고 확실하게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헌금에 대해 한번도 얘기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언론인회에 출선수범을 보이기 위해 1천만 원을 내겠습니다.

뜻 있는 회우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살림살이를 맡아 많은 고생을 하신 정운종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무거운 짐을 벗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일보 출신 이향숙씨에게 맡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씨는 평소 투명, 정직하고 명

석해 언론인회 분위기가 나름대로 달라질 것입니다.

회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언론인회의 가장 큰 복지는 건강을 위한 조치들입니다.

오는 3월부터 3~4명으로 구성된 韓醫팀이 매월 한 번씩 몸이 아픈 회우들에게 침·뜸 시술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금년 상반기 중 40여 명이 한 팀인 건강체크 洋·韓方 의사팀이 우리 회우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우 여러분!

모든 일에서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갑시다. 走馬加鞭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벗들이여 이렇듯 귀여운 꽃을 받다니 (Merce, dilette amiche, di guei leggiadri fior)’

베르디의 ‘시칠리아의 저녁기도’에 나오는 ‘마리아 칼라스’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그날의 감동을 그리고 희망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회우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은구 19대 회장 퇴임사

2014년 1월, ‘김은구 당선’ 선포가 된 회의장 단상에서 “앞으로 지고 갈 짐이 무겁구나”라고 했던 제19대 대한언론인회 회장 임기 2년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회우님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시작된 2년동안 저 자신의 사생활은 잊은 채 제 판에는 열심히 하느라고 일했습니다.

전임자 홍원기 회장의 극성스럽다싶은 근면성에 압력을 받아 아침 8시에 집에서 나와 컴컴해서야 집에 들어가는 일간이 세월이었습니니다. 현역 떠난 후 접었던 출근남편 시중을 다시 해야했던 집사람에게 “미안, 미안”이었습니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는 보고 밖에 드릴게 없습니니다.

회장후보로 내걸었던, 그리고 회장취임사에서 “친목을 넘어 그 무엇을 향해 뛰라는 회우님들의 주문을 이룰 수 있게 뛰고 또 뛰겠다”고 했던 약속의 결과들이 무엇이 됐는지는 오직 회우님들의 평가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구 회장

떠나는 자는 말이 없어야한다는 선현들의 말씀대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회장선거가 매번 치열해져서 갈등이 빚어질 우려 말입니다. 비운 뒤에 땅이 더 굳듯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한언론인회 역사상 초유로 400여명의 회우가 출장

했던 19대 회장 선거를 치른 후 저는 “당락이 갈리고나서 최후의 승자는 회우 모두로 우리는 함께입니다”라고 외쳤고 20대 회장 당선자 이병대 회장도 당선 직후 회우들에게 띄운 문자메시지에서 “모든 것이 끝난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함께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왔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우 모두도 함께해주시리라 믿습니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19대 회장 김은구.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겠습니다. 회우님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

## 20대 집행부 명단 (가나다 순)

### <고 문>

신우식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  
제재형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  
조창화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  
홍원기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

### <명예회장>

김은구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

### <감 사>

박응칠 (전 KBS 해설위원)  
이태영 (전 중앙일보 색션국장)

### <부회장>

민정기 (전 대한일보 기자)  
백환기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장기호 (전 신아일보 사회부장)  
최귀조 (전 한국경제 편집부국장)  
(1명 추후 발표)

### <이 사>

상임 이향숙 (전 한국일보 문화부차장)  
김영호 (전 KBS보도실 기자)  
김 화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도준호 (전 조선일보 부국장 겸 북한부장)  
박 실 (전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신대근 (전 MBC 보도제작국장)  
심상대 (전 KBS 경제부차장)  
안평선 (전 KBS춘천방송 총국장)  
이재권 (전 동아일보 미디어기획실장)  
이 휘 (전 KBS목포방송 국장)  
장 옥 (전 경향신문 주간부 부장)  
최선록 (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호천웅 (전 KBS LA지국장)

## 大韓言論人會 제 20대 집행부 얼굴들

### 고 문



신우식 고문



제재형 고문



조창화 고문



홍원기 고문

### 명 예 회 장



김은구 명예회장

### 감 사



박응칠 감사



이태영 감사

### 부 회 장



민정기 부회장



백환기 부회장



장기호 부회장



최귀조 부회장

### 이 사



상임·이향숙 이사



김영호 이사



김 화 이사



도준호 이사



박 실 이사



서옥식 이사



신대근 이사



심상대 이사



안평선 이사



이재권 이사



이 휘 이사



장 옥 이사



최선록 이사



호천웅 이사

# 비상상황 극복 거국태세 갖추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와 연이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했으며,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우리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 현정사상 처음 거리서명 나선 대통령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현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길이라고 촉구하고 국민들이 앞장선다면 자신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는 18일 길거리에 나가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주도한 1000만명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가두서명운동에 가담하는 현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박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그가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국회를 넘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소리가 있다. 필자는 박 대통령이 좀 더 국회, 특히 국회의장과 야당지도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벌이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섰겠는가 하고 찬동하는 여론도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박 대통령이 현재 한국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월남패망 당시와 비교한 것은 너무 나아갔다고 본다. 그렇기는 하나 필자는 현재 우리는 1997년의 외환위기에 못지않은 안보와 정치, 그리고 경제의 3중위기에 당면했다고 생각한다.

첫째, 새해 벽두 온 세계를 놀라게 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성공 발표는 북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이제 종래의 미지근한 유엔 안보리 제재는 더 이상 의미를 잃었다, 북핵이 기정사실화되면 남북한간 군사력의 균형은 사실상 뒤집어진다. 우리 국민은 이런 힘의 불균형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미국 중국 등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이 마련 중인 북한제재안의 윤곽이 나와 보아야 알겠지만 과연 효과적인 새로운 제재방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북한 지도부의 교체전략이든, 제한적인 무력행사전략이든, 아니면 완전한 역발상에 의한 새로운 차원의 남북대화 등 우리가 나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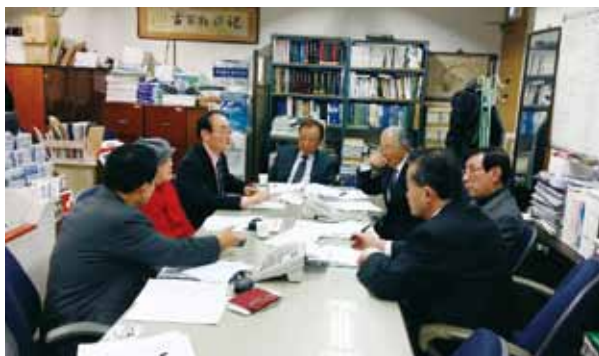
## ‘北 핵보유국’ 가정 대북정책 국민 이해 구해야

둘째, 북한의 4차 핵실험발표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이제 우리는 일단 북한을 핵보유국이라는 가정 아래 대북정책을 재구성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왔다. 북한의 핵개발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1992년에 남북한이 조인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위반이기도 하다. 이는 북측의 남측에 대한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제재대상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같은 1992년에 남북 정부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로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된 4차 북핵발표를 계기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해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얻어야 할 시점이다.

## 본회 제20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열어

대한언론인회 20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6일과 18일 양일간 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영섭위원장을 비롯 박기병 후보 측 추천 선관위원 김무중 김의수 안병준 위원과 이병대 후보 측 추천



본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 20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심상대 이재권 이향숙 회우 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거를 관리하자고 합의했다. [본문]

## 北核 대응



남시욱

- 본회 상임역
- 전 문화일보 사장
- 세종대 석좌교수

## “국민이 나서야” 대통령 절박한 호소 정치 전면 재구성 필요

## 대북제재 새로운 방안 강구 국론분열 절대 안돼

셋째, 중국의 태도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시진핑은 2014년 7월 방한 때 발표한 박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그의 선임자들과는 달리 종래의 ‘한반도의 비핵화’ 구절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핵개발 반대’라는 구절을 추가함으로써 북핵반대를 분명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북핵 4차실험 직후 중국은 당초의 강경한 반대입장과는 달리 며칠이 못가서 난데없이 세 가지 원칙, 즉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된다는 온건한 방침을 한국측에 통고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시진핑에 대한 공개적인 실망론이 표출되는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새로운 3원칙 아래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은 테두리에서 핵무기추진세력만을 제거하는 방안을 중국이 추진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다. 여하간 동북아의 세력판도가 과거의 냉전시대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대중국 정책의 기초를 조율할 시점이다.

넷째, 한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완전한 파탄을 맞았다. 19대 국회가 현정사상 최악의 국회임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예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예비후보들이 나온 후까지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못한 사실이다. 민생법안과 테러방지법안 등 시급한 법안들을 외면한 국회는 이미 국민의 대의기관이라 할 수 없다. 국회는 권력쟁취를 위한 정당과 정치인들의 싸움판이 되고 말았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새누리당은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180석을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선거혁명으로 국회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대권주자 정치판 휘저어 정당정치 파탄상태

다섯째, 한국의 정당정치는 대권주자들이 정치판을 휘젓는 통에 거의 파탄을 맞이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현재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은 모두 1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데 비하면 한국의 정당은 몇 년도 못가는 하루살이집단이다. 걸핏하면 정당 이름을 바꾸거나 대권주자들이 새 정당을 만드는 일이 관례처럼 되어버렸다. 이 같은 선례는 1987년 민주화과정에서 민주당의 김영삼과 김대중 두 대권 주자가 경쟁하다가 김대중이 탈당해서 평화민주당을 창당한 것이 오늘의 대선용 정당창당의 선례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치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때를 맞았다.

여섯째, 박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한국경제는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 때 겪었던 경제적 위기, 특히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 특히 노동개혁과 규제혁파는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태만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19대국회는 남은 회기에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는 젊은이의 일자리 마련도, 빈부격차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므로 정치권은 정부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해에 당면한 한국의 비상상황은 거국적인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본문]

##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회우)



혹시 뱃속에서 터질지도?

# 벌거벗은 한국 ‘核우산’ 만으로 한계

군비통제(arms control)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구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력과 군사태세를 상호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군비통제를 위해서는 상호간 위협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메워나감으로써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때문에 군비통제란 군사력의 감축이나 해체를 의미하는 군비축소(arms reduction)나 군비해제(disarmament)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협소한 한반도에서 ‘수소탄 보유’를 선언한 북한과 동거해야 하는 한국은 북핵 위협을 불식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의 군비통제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고심해야 한다.

## 레이건형 군비통제방법으로 대처해야

이론가들은 군비통제의 형태를 ‘레이건형’과 ‘고르바초프형’으로 구분하기를 좋아한다. ‘레이건형 군비통제’란 상대국으로 하여금 일방적 군비증강이나 무모한 군비경쟁이 스스로에게 손실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입증시켜 줌으로써 상대국의 정책변화와 군비축소를 끌어내는 현실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고르바초프형 군비통제’란 도덕적 명분과 정당성을 앞세우고 스스로 군사력을 감축 또는 조정하고 상대가 감복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하는 방식으로 ‘성인군자형 군비통제’로도 불린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레이건형 군비통제가 고르바초프형 군비통제를 이끌어낸 사례는 많지만, 그 반대의 사례는 없다는 사실이다.

1981년에 집권한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소련의 방대한 핵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 핵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무기들을 우주공간에 배치하는 ‘별들의 전쟁 프로그램(star wars program 또는 SDI)’을 강행했다. 이 계획은 미국내에서 기술적·재정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소련은 졸지에 자국의 모든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SDI 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이 군비경쟁은 소련의 재정적 몰락을 가져왔고, 소련은 결국 연방해체라는 운명을 맞이했다. 그 과정에서 1985년 소련의 제8대 서기장으로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스스로 미국과의 핵경쟁을 포기하고 진행 중인 핵무기 프로그램들을 폐기하면서 개혁개방으로 선회했고, 미국은 SDI를 중단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세찬 군비경쟁을 통해 미소간 핵군비통제를 이끌어내고 소련의 항복(?)까지 받아내 냉전을 종식시킨 주인공이 되었다. 지금 레이건은 미국에서 가장 추앙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이다. 이런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죽기살기로 핵무장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민족적 비극 예방’ 등의 공자님 말씀을 앞세우고 핵포기를 설득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 한심하리만큼 순진한 사람이 되고 만다.

## ‘적화통일 도움 안된다’ 깨우쳐야

그렇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한국도 핵무장이라는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공포의 균형(balance of Resolution)’을 이루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다시 말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가 각종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한반도 적화통일에 유용한 대남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과 주민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군비통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 행보는 중국에게 경각심을 주게 되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실질적인 대중외교카드를 갖지 못한 채 중국의 우

## 北核 대응

### 특별기고



김태우

·건양대 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 非核化선언 폐기 원자력 잠수함 건조 核재처리 능력 확보 추진

## 北이 공포감 느낄 보복용 무기개발 국력 총결집 해야

호적 조치만을 기다려야 하는 한국의 처지도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사회에서 비핵국으로 남되 독자능력 및 동맹차원의 대응능력 증대를 통해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도전하여 한국도 핵무장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은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게는 핵무장을 선택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많다. 세계에서 가장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이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고립의 길을 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나, 동맹국인 미국의 반확산정책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점은 더욱 곤혹스럽다. 동맹국 한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하는 대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만류하는 미국의 정책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 농축과 재처리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불변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핵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한국을 향해 “내가 온기를 불어주고 있으니 옷을 입지도 말고 입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핵의 추위 앞에 떨고 서 있어야 하는 한국의 처지도 지속될 것이다.

## 美전술핵 재반입-자동개입조항 명시도 유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핵국과 비핵국 사이에 꽤나 넓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이 비록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더라도 핵국과 비핵국 사이에서 최대한의 입지를 확보하는 방법들은 많다.

동맹차원에서는 미국의 공대지 핵무기에 한국 공군기가 투발수단이 되는 유럽식 ‘전술핵 재반입’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 보다는 효과가 못하지만 미국이 핵탄재 전략잠수함을 동해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도 불가능하지 않으며, 동맹조약에 자동개입 조항과 핵우산 공약을 명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미국이 강추위에 떨고 있는 동맹국에게 외투는 아니더라도 속옷이라도 입혀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또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대중 핵외교력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 발상의 전환은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핵국과 비핵국 사이의 ‘독자적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결단들을 내려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로 사문화(死文化)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폐기하는 것은 기본이며,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독자적 농축능력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 사용 후 핵연료의 친환경적 처리와 플루토늄 확보를 위해 재처리 능력을 갖추는 것도 당면 과제이다. 미국에게 이 정도의 발상의 전환마저 요구하지 못한다면 “같이 갑시다”를 외치는 동맹이라 할 수 있을까? 동시에, 한국군은 북한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보복용 무기체계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간 그리고 각 군내 조직간 시시콜콜한 ‘예산·사업 지키기’ 경쟁은 완전히 불식되어야 한다.

한국, 미국, 중국, 북한 등이 각자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십년이 경과한다면 한반도 안보지형은 어떤 모습이 될까? 경위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국은 유일 동맹국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로 만드는데 성공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고, 북한은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중견 핵보유국이 되어 한반도에서 군림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나신(裸身)의 상태에서 강추위에 떨면서 애절한 눈빛으로 미국과 중국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국민은 과거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을 것이다. 



수소탄 실험후 평양에서 열린 군중집회.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 원점 선제 기습공격이 해결책이다

자칭 ‘조선인민의 최고존엄’ 김정은이 드디어 일을 저질렀다. 직접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일본·미국은 물론, 맹방(盟邦)인 중국마저도 김정은의 소행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 유엔제재 뽐족한 수 없어… ‘휴민트’ 부활해야

각국이 다 NSC(National Security Council·국가안전위원회)를 소집하고 유엔도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아무도 별 뽐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뽐족한 수를 찾지 못해도, 대한민국 외의 다른 나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니다. 한 치건너 두치라 할까?

제일 급한 것은 바로 이마뺨 거리에 핵폭탄을 이고 있는 대한민국이며 수도 서울 지도부 사람들이다. 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는 ‘수소폭탄’ 실험 등 도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수소폭탄실험의 대가로 무슨 별을 받게 될까? 대통령 이외엔 아무도 모른다.

김정은은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군사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승부의 원칙은 안다. 그것은 개인간의 싸움이나 국가간 전쟁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선제공격. 이것은 만고불변의 싸움과 승리의 원칙이다. 다만 선제공격에는 절묘한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타이밍에 맞게 선제공격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불가결이다. 하나는 정확한 정보. 다른 하나는 피땀 흘리는 훈련이다.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다. 따라서 백전백승이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없어 보인다. 아리랑위성도 있고 미국의 군사위성, 고공 스텔스 정찰기 등 정보수집에 필요한 장비는 다 있다. 하지만 정보의 근간인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인적정보)가 없다.

급선무는 이걸 부활시키는 거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를 환골탈태, 재편해야 한다. 북한 핵 시설을 잘 아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피눈물 나는 훈련이다. 1941년 12월 8일 새벽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해군기지를 급습한 일본해군 항공특공대장 후치다 미쓰오 중좌(중령)의 증언(‘진주만공격총대장의 회심’)에 따르면, 수년간 똑같은 훈련을 되풀이 했다고 한다.

## 진주만 기습 日海군 모의훈련 본받아야

일본제국 해군특공대의 총책임자였던 후치다는 시코쿠(四國)에 진주만과 똑같은 지형의 해군기지를 만들어 놓고 항공기로부터의 어뢰발사훈련을 수없이 거듭했다는 것이다. 진주만과 똑같은 지형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전함들이 정박해 있는 곳의 수심이 불과 12m인데 이 수심도 똑같은데다가 똑같은 크기의 모형전함을 만들어 놓고 어뢰투하 연습을 했다는 것.

수심 12m에 떠있는 군함에 어뢰를 정확히 투하하려면 항공기는 수면에 되도록 가까이 저공비행을 해야 한다. 저공비행을 하게 되면 적의 대공포화를 피하기 힘들다. 그런 모든 악조건을 모의설정해 놓고 몇 년동안 똑같은 훈련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우리 공군도, 이걸 해야 한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심 하나로 사악(邪惡)한 김정은과 김정은 집단은 멸망하고,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살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은 특공대를 편성하여 북한의 영변·태천 등에 산재

## 北核 대응



이도형

- 본회 상담역
- 전 한국논단 발행인
-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 정확한 정보

## 피땀어린 훈련으로

## 절묘한 타이밍 잡아야

## 공군 특공대 편성

## 核기지 동시타격

## 敵의 허점 찌를 필요

한 핵기지를 동시에 기습타격해야 한다. 물론 북한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남쪽을 겨냥한 각종 포문이 일제히 불을 뿜을 것이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나. 그 정도의 도발은 각오해야 한다. 북한은 세계無比(無比)의 강력한 무장집단이다. 맞붙으면 우리도 맞아야 한다. 전쟁에서 100% 완전승리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더 큰 불행을 자초할, 핵시설의 선제공격을 머뭇거리거나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굴복이나 멸망밖엔 없다. 더 큰 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작은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당장의 피로를 풀기 위해 휴전을 결행했다. 통일 없는 휴전, 공산군 전멸 없는 휴전은 또다른 재앙이라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한국민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당장의 피로를 견디지 못했다.

## ‘평화통일’ 구호·진검승부론 승산없어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세계무비의 ‘조선인민군’과의 소모전이 두려워 타격을 머뭇거리고 있다. 부패무능한 한국의 지도부도 ‘평화통일’만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에게 완승을 거두었을 뿐, 한국에선 무승부, 베트남에선 완패하고 말았다. 일본에게 완승을 거둔 것은 일본이라는 상대가 전쟁과 국제사회의 게임법칙(rule at game)을 알고 지켰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이나 베트남의 공산월맹군은 구미사회에서 통하는 게임법칙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의 특기는 기습과 게릴라식 복병이며, 정정당당한 맞상대가 아니다. ‘조선인민군’이나 월맹군이 기사도(騎士道)나 무사도(武士道)에서 통하는 결투나 진검승부의 맞상대를 했다면 미국은 완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과 맞상대 하면 질 줄을 뻔히 안다. 그래서 그들은 정면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는다. 기습, 또는 적이 허를 보일 때 적의 후방으로 돌아 보급로를 차단, 포위공격한다. 손자병법의 위계(僞計)·모공(謀攻)이 그들의 장이다. 미국은 그런 그들에 맞서기 위해 비정규전을 연구하고 게릴라 흉내를 내는 특전부대도 만들어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흉내에 그쳤지, 적과 똑같이 성공하지는 못했다.

미국이나 한국이 비정상적인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법은 선제기습공격(Pre-emptive, surprise attack) 밖에 없다. 이걸 망설여서도 안되고 사전공표 해서도 안된다. 적의 수법 그대로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맹타밖에 없다. 다행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물자가 풍부하다. 그런 동맹을 가진 한국은 머뭇거리기는 미국에 앞서 먼저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내에 기지를 둔 미군은 즉각 자동개입 할 수밖에 없다.

하늘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를 주었다.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는 한미양국의 첨단무기가 총동원된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하여 하늘의 요새 B-52 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등이 동·서해에 등장하고 있다.

북의 무장집단은 바짝 긴장할 것이다. 그러나 북이 만약 손가락 끝이라도 까딱하다간 그들의 자멸의 직접계기가 될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결의를 골백번 해도 북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사악한 불법집단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 부숴 없애는 수밖에 없다. [국문]

## 설 명절 吉祥善事 賀心

2월 9일은 민족의 큰 명절 설날, 차례(茶禮) 세찬(歲饌) 세배(歲拜) 미풍양속 덕담 나누시고 황금연휴 즐겁게 보내시며 올 한해 길상선사(吉祥善事) 많이 이루소서!

김은구(본회 회장)

## 총선 계절풍 벌써 광풍

여야 4월 총선 몰입. 초특급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다당제의 혼란 속에 당쟁, 정쟁, 진흙탕 흑세무민 광풍이 일어날 조짐이다. 무능 국회의 국해(國害)를 뜯어고칠 개혁·혁신의 판정은 유권자가 내린다.

전용호(편집위원)

## ‘100자 발언대’

### 核망동 보복응징은 당연지사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對北 확성기 방송 재개하고 美 B-52 띄워 무력시위로 응징.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망동임을 규탄하는 인류의 공분(公憤)을 김정은에게 전달함은 당연지사.

최명우(편집위원)

### ‘웰다잉’ 합법화 시대맞아

백세시대 ‘존엄한 죽음’을 두고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웰다잉 법’이 19년 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 회생 불능상태의 환자에게 연명 의료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무의미함을 뒤늦게 인정한 것.

### 도 넘은 보육대란 코앞에

일부 교육청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제로 예산 편성’하고 교육부와 설왕설래. ‘질 높은 교육’을 내걸었던 당초 사도(師道)가 어린이를 담보(?)로 한 예산타령 정치판 처사로 변질된 것인가?

유한준(편집위원)

### 더불어민주당 ‘경제 민주화’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가 안됐다고 민주당 토박이 DJ맨 권노갑 고문은 떠나고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두루 섭렵한 화려한 변신의 김종인이 그 자리를 메웠다. 그가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도 같은 민주화인데 더불어민주당 ‘경제 민주화’는 가능할까?

정창기(편집위원)

# 美에 도움주는 동맹강화책 모색을

지난 6일 북한은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이를 ‘첫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폭발의 위력으로 볼 때 수소폭탄일 가능성은 적다고 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증폭핵분열탄 실험 또는 단순 핵실험이라고 규정했다.

## 전술핵 도입·독자核무기개발 모두 쉽지않아

북한은 핵실험을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수소폭탄 또는 소형화를 위한 기술적 진보를 위한 것,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압박, △시진핑 주석 출범 이후 가까워지고 있는 한중관계에 대한 불만,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재확인, 또는 △국가적 위신을 고양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유도 및 내부결속 다지기 등 다양한 분석이 존재한다.

북한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필요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핵무기는 대미용 또는 협상용이라는 주장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망각하고 있거나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순진한 이상주의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대남관계를 주도해 왔던 김양건이 사망하고 그 자리에 대남도발을 주도해 왔던 김영철이 임명되었다는 소식도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견하게 한다.

이렇듯 현실화되어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우리는 잘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한다든가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쉽지 않은 대안들이다. 미국의 핵전략은 언제 어디에서든 지구상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이다. 필요시 잠수함, 태평양에 배치된 함정, 괌 또는 하와이에 배치된 스텔스기 등에 의해 언제든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국제적 고립과 엄청난 경제제재를 극복해야 한다. 대외무역과 에너지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국제적 제재는 북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90%에 달하며, 에너지의 95% 정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국제적 제재를 무릅쓰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자멸과 다름없다.

##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동맹결성이 관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약육강식의 국제질서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이 나보다 우세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든가, 적을 압도하거나 적어도 대등한 능력을 가지든가, 아니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동맹을 결성하는 것이다. 위 세가지 옵션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옵션일 것이다. 미국의 안보공약을 더욱 확고히 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주한미군이 자동개입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느 일방의 피침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나토의 경우 나토이사회에서 군사개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군사행동에 대한 참여 여부는 각 회원국의 의지에 달려있다. 미일동맹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는 형태지만 일본의 방위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동맹의 형태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해외군사개입은 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 北核 대응

### 특별기고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美의회 승인 없으면 유사시 자동개입 등 방위조약 무용지물

## 일방적 수혜보다 상호신뢰 바탕 ‘철갑동맹’ 이뤄야

다는 점은 동일하다. 미국 대통령이 군사개입을 명령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북한의 전면전 도발시 주한미군이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하여 미군이 자동개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전시 한미 양국의 최고 통수권자의 승인에 의해 하나의 지휘체계 하에서 양국군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강력한 형태의 동맹구조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한미동맹이 제기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확고한 방위공약을 선언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공약을 이행하느냐의 문제는 한미관계가 얼마나 긴밀하며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우리 여중생 사망사고와 광주병과동시와 같은 반미감정이 지속된다면 미국 의회가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승인할지 의문이다. 주한미군 기지 주변 또는 훈련장의 소음과 환경문제를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거나, 주한미군 병사들의 폭력, 성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를 둘러싼 반미감정은 한미동맹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양국의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결국 국가간의 신뢰약화로 연결될 것이다.

## 美, 테러와의 전쟁 등 동맹국 분담 요구

동맹의 힘은 상호 신뢰에서 나온다. 제도적으로 양국 군대를 하나의 사령부로 묶어 놓는다고 해서 언제든지 미군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한미군을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 놓는다고 해서 미군이 자동개입되는 것도 아니다. 미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상호방위조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작년 사드 배치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너무 기울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더이상 좋을 수 없으며, 난공불락(invincible)이라고도 했다. 리퍼트 주한 미대사는 최근 한미동맹은 철갑(iron-clad)과 같다는 표현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방위비분담보다 방위역할 분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미국의 요구에 잘 부응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이나 전투부대의 해외파병에는 절대 반대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미국이 즉각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작년 7월 주한미군 예하의 제1전투여단이 해체되고 1개 여단이 9개월씩 주한미군에 교대로 순환 배치되고 있다. 미 제1기갑사단 예하의 1, 2기갑여단이 교대로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한국 방위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무기와 어떤 부대를 어떤 형태로 배치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한미간의 신뢰와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난공불락의 성(城)이나 뚫리지 않는 철갑(鐵甲)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으로부터의 일방적 안보 수혜만 바랄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도울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E]

## 회우들이 펴낸 신간

### 김진규 원로회우 ‘세상을 향해…’

김진규 원로회우가 <한 퇴역 언론인의 시대 명상집>이라는 부제가 달린 <세상을 향해 쓴 노인의 물총>을 펴냈다.

40년을 언론외길로 살아온 저자는 정

년퇴직 후 4번째 펴내는 이 책 서문에서 “한평생을 신문과 펜에 의지하면서 나의 기사 한 줄에 시와 음악과 사상과 종교를 담으려 노력했는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세상살이의 이모저모를 펜이 가는대로

또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80평생을 정리하는 글을 남기고 싶었다”면서 “이 책은 노인이 되어 보는

씨내려갔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후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적었다.

322쪽의 이 책은 1부 나라 장래를 걱정하다. 2부 철이 들어 익힌 지혜. 3부 우리는 어떤 노인이 되어야 할까. 4부 근심걱정 줄이는 법. 5부 나의 회고담으로 나누어졌다.

김 회우는 서울신문 논설위원, 국민일보 논설실장, 한국기자협회장, 경기대 겸임교수를 지냈다.

<새녘출판사 발행·값 18,000원>

# 정보기관 政治이용 더이상 안된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들의 군사정보능력이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강한 국민적 신념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적대국들 인구의 50분의1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철통같은 안보정책들을 잘 구현하고 있다. 그 핵심비법 중 하나는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보기관들인 모사드(The Mossad), 지에스에스(GSS·The General Security Service), 신바드(Shun Bet), 군정보사령부(Aman), 외무부소속 정보기관, 내무부소속 정보기관 등 6개의 정보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정보기관들이 이스라엘 안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정보들을 빈틈없이 수집하고, 정확하게 분석,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강한 정보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 적 도발 이전·이후 대응책 마련에 절대요소

군사정보능력 보유여부가 국가안보의 성패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적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잘 알 수 있다. 완벽한 안보역량이란 적 도발이 있기 이전에 철저히 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안보역량을 의미하며, 도발이후에는 탄력성을 갖고 적을 되받아칠 수 있는 안보역량을 의미한다.

적의 도발하기 이전에 적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적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키 위해서는 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는 일이다. 적의 도발을 받은 이후에 국가안보차원에서 단계별 조치사항들을 제1단계에서 적의 공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제2단계에서는 적 공격에 대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며, 제3단계에서는 군사적인 보복을 이행하는 단계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본 3가지 단계 모두는 적에 대한 그리고 아 측에 대한 정확한 군사적인 정보가 없으면 어느 것 하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제1단계조치로서 적의 공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내용들로서는 ① 적공격의 원인+적공격의 성격분석, ② 적 공격으로부터 받은 피해규모 정밀 분석, ③ 적 성격+적 능력 분석 등이다. 다음 제2단계 적 공격에 대한 정치적인 결단의 단계는 ① 군사적인 결정이전에 정치적인 의사결정, ② 동맹국과의 협의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제3단계 군사적인 보복의 단계에서는 ① ‘정교함+확증과괴력’이 동원된 보복, ② 적에게 전율과 공포를 주는 보복 + 적에게 자기를 도발에 대한 후회를 하게하는 보복 + 적에게 더 이상 공격의 의지와 능력을 상실케 하는 보복이 되어야만 한다. 이상 언급한 제1단계서 제3단계까지 모든 내용들은 적의 상황, 아군의 상황 그리고 동맹국의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어느 것 하나 그 내용들을 분석할 수도 없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 수도 없다.

## 北도발 정보능력 부재때문 제대로 보복못해

근년에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묵함지뢰도발, 제4차 핵실험 등 각종 대남도발들에 대해 남한은 사전차단은커녕 도발이후에 되받아치는 보복을 제대로 못했다. 그 결정적인 이유들은 모두 북한의 도발 때마다 군사정보능력의 미흡함이 핵심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발상을 전환한 새로운 기상천외한 도발들을 계속 개발하여 실제 도발행위로 실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도발이전에 북한에서 무슨 도발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도 미흡하고, 국제적인 공조체제도 부족하고, 첨단장비들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들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은 “적 도발 사전차단역량 미흡”이란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각종 도발을 받고서도 적이 왜 도발했는지, 적도발의 성격

## 北核 대응



송대성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전 세종연구소 소장

## 군사정보 능력은 국가수호 인프라 안보역량 가늠자

## 동맹국과 교류강화 첨단장비 구비 종사자 충성심 길러야

이 무엇이었는지, 적은 어떤 능력으로 도발을 감행했는지, 보복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물들을 선정하여야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보복을 하여야만 적에게 전율과 공포를 주면서 적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되받아치는 보복다운 보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도발 때마다 늘 “차후에 이런 도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한다”만을 되풀이 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군을 보복할 줄도 모르는 “빈말만 하는 종이호랑이”라고 비아냥대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대는 빈말하는 군대가 아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 상황까지 되었다. 그래서 강한 정보역량을 구비하지 못한 안보역량은 사실상 안보역량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현재 한국 안보역량은 군사정보역량의 미흡이라는 큰 결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군사정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국의 군사정보역량은 (1) 군사정보역량의 비정치화, (2) 군사정보역량의 국제화, (3) 군사정보역량의 첨단과학화, (4) 군사정보분야 인력의 전문성 및 충성심 제고 등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한다.

군사정보역량 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정보역량 전체를 약화시킨 제일 중요한 요인은 지난 역사 속에서 정보기관의 정치화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가정보기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보기관들은 정치권에 순응한 사례들이 빈번했다. 한국의 정치권은 정치적 목적성을 갖고 애정 없이 한국의 정보기관들을 난도질 했고 정보기관들은 수없이 품비박산을 당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전문화되기 보다는 정치화되어 전문성제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한국 정보기관들의 비정치화가 진정으로 정보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한 조건이다.

## 利敵性국가와 교류하면 美-日선 협력기피

한국의 군사정보역량이 국제화되지 않고는 그 전문성이 제고될 수 없다. 동맹국 및 우방국 정보기관들과의 교류협력 증대는 한국정보기관들의 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미국과는 말 할 것도 없고 일본과도 군사정보 교류협력을 활성화 해야만 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미국이나 일본 등 우

리의 동맹 혹은 우방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적성(利敵性)이 높은 나라들과 한국이 친교를 강화하면 할수록 한국정부와 정보교류협력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과 교류협력을 강조하면 할수록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과의 정보교류협력을 비례하여 차단시킨다는 점도 알아야만 한다.

한국정보기관들은 선진제국들이 부단하게 개발·발전시키고 있는 첨단과학화된 장비들을 구비하면서 한국의 정보역량을 계속 발전시켜야만 한다. “북한이 너무나 폐쇄적이라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는것이 어렵다”는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 적의 상황이 어떠한 경우라도 그들의 정보를 수집함에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다. 고도로 첨단화·과학화된 정보장비들과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동원되면 돌파할 수 없는 장벽은 있을 수가 없다.

한국 정보기관 종사자들은 그 전문성과 충성심이 더욱 제고되어야만 한다. 정보기관 종사자들이 보유해야만 할 제1 신념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다. 적 진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함에도, 수집된 정보를 시간을 놓치지 않고 분석함에도, 정보들에 대한 비밀고수도 모두 충성심을 절대 필요로 한다. 정보기관 종사자들은 일거수일투족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속에 담고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정보기관들과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요원들은 부단한 교육 및 개인적인 노력 등을 통해 세계적인 전문성 소지자들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들을 경주해야만 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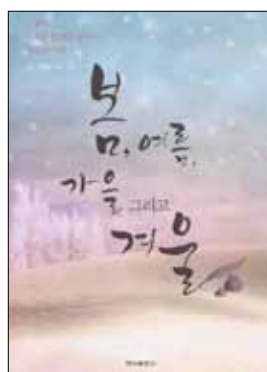
## 회우들이 펴낸 신간

### 이형 원로회우 ‘봄, 여름, 가을…’

이형 원로회우와 부인 김명주 여사 부부가 쓴 수필집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출간됐다. ‘인생의 사계를 함께한 부부의 행복한 기억’이 이 책의 부제. 1983년에 銀婚의 해를 맞아 역시 부부수필집 <좋은때나 낫을때나>를 펴냈던 이형 원로회우는 이번에 두 번째

부부수필집을 내면서 “삶을 흐르는 강물로 생각하고 조용히 평온하게 음미해가면서 살고 싶다”고 했다.

또 저자는 머리말에서 “그새 수많은 봄 여름이 가고 가을 겨울이 갔다.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우리도 회혼의 해를 맞는다. 어지간히 오래 함께 살아온



한 길이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둘이 다

셈이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길을 얼마나 더 걷게 될지 또 그 길이 어떠

시 걸어가야 한다”면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284페이지의 이 책은李 원로회우의 1장 고향 통영의 빼어난 풍광, 향학열, 향토음식부터 6·25전쟁 부산피난시 연합신문 기자로 시작해 평생을 언론에서 일하던 지난날 그리고 생활단상의 4장, 부인 金 여사는 대학로 라일락꽃나무 밑에서 학창시절(서울대 정치과)을 회고하는 1장 가을에서 3장 춘란으로 나눠 동양화 같은 세월을 그리고 있다.

<청아출판사 발행·값 14,000원>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인사이드

# 연말 방송상 자화자찬 집안잔치

지난 해 1월, 나는 ‘방송시평’란에서 지상과 방송들의 연말 각종 방송대상들을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비판하고 이런 행사는 사내 행사로 치르라고 권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행태는 올해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 145개나 되는 지상 최대 상 잔치

우선 이 시상은 자사의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화자찬 식 집안잔치이다. 자사의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하니만치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세상에 다시없을 자기 작품에 자기가 상을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선일보는 “한 해 영화 관객이 2억 명이 넘고, 한국 영화 개봉 편수가 252편이 넘는 영화에서도 영화 배급사들이 자사 작품에다 상을 주진 않는데 왜 방송사만 자체 시상식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의 형태도 똑 같아서 ‘연예 대상’, ‘연기 대상’으로 붕어 뺑이다.

다음으로는 상의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점이다. 연예대상은 MBC가 무려 33개, SBS가 25개, KBS가 24개에 이른다. 연기대상은 KBS 24개, MBC 21개, SBS 18개이다. 지상과 3사의 연예대상과 연기대상의 종류를 합치면 145개나 된다. 이는 상을 쪼개서 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KBS는 드라마를 일일·미니·중편·장편의 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해 진행자가 미니 드라마는 몇 회 이하, 중편은 몇 회, 장편은 몇 회 이상이라는 궁색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MBC는 미니·연속극·특별기획으로 나누었는데 계속 방송되고 있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기획이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 SBS는 장편·중편·미니로 나누어 상을 주었다. 여기에 각 부문마다 우수, 최우수, 더러는 공동 수상까지 곁들여서 출연자 챙겨 주기 식의 참가상적인 성격이 짙었다. 연예대상도 코미디, 버라이어티, 뮤직·토크쇼 등으로 나누어 상을 주었다. 하도 상을 많이 주니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은 배우 강예원은 ‘상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수상소감을 했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상이 상이 아니다.

## 새벽까지 4시간 넘게 방송도

정체불명의 상도 많았다. 베스트커플상, 10대스타상, 네티즌상, 베스트챌린지상, 베스트엔터테이너상, 이름만으로는 대상(大賞)과 구별이 안되는 최고엔터테이너상, 핫이슈연예인상, 베스트팀워크상, 신인상과 구별이 안되는 뉴스타상, 가요대상홍보대사상, 올해의 리더상이란 것도 있다. 위인설관(爲人設官)




**유자호**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파രി특파원
-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 쪼개기-정체불명 명칭으로 시상 방통위-방송사 통합운영 바람직

식의 상 구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상식에 참가하는 스타 모두를 섭섭지 않게 하려니 이렇게 상을 쪼개고 또 쪼개고, 공동 수상까지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방송시간도 개념 없이 길었다. 가장 길었던 것은 새해 새벽 1시까지 이어진 SBS 연기대상으로 4시간 13분이었고, 지상과 6개 시상식 중 셋이 4시간을 넘겼다. 참고로 미국 아카데미상의 최근 10년 평균 방송 시간은 3시간 30분가량이다.

또한 중복수상이 상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MBC 연기대상의 대상 수상자인 ‘킬미, 힐미’의 지성은 베스트커플상, 10대스타상, 최우수연기상도 받아 4관왕에 올랐다. SBS 연기대상의 대상 수상자인 ‘용팔이’의 주원은 중국네티즌 인기상, 10대스타상, 베스트커플상도 받아 4관왕, ‘그녀는 예뻤다’의 황정음과 박서준도 4관왕이 됐다.

최고상인 대상도 복수로 주었다. KBS 연기대상은 김수현과 고두심, SBS 연예대상은 유재석과 김병만이 공동 수상해 대 방송사들이 인기 연예인들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행사를 진행해야 할 사회자도 상을 받았다. 심지어 중복 수상도 흔해 사회적과 수상자 석을 들락거리며 1인2역을 하는 겸연쩍은 모습을 연출했다. KBS 연기대상은 3인의 진행자 가운데 김소현에게 3관왕(여자신인연기상, 베스트커플상, 네티즌상)을 안겨주었고, 박보검에게는 2관왕(남자조연상, 인기상)을 안겨 주었는데 이럴 바에야 사회자를 다른 사람들로 세워야 했다.

자사의 우수한 아나운서들도 많지 않은가? MBC 연예대상은 대상을 받은 김구라를 포함해 세 MC가 모두 수상자가 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방송의 전달 수단은 ‘말’인데 ‘말’의 비속어를 자신의 이름으로 쓰고 황봉알이란 사람과 인터넷 시사대담을 진행했던 사람에게 대상을 주는 MBC는 그 가치관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행자 수상은 SBS도 예외가 아니었다. 참으로 무신경한 캐스팅에 무신경한 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수상소감 내용도 문제

무신경하기로는 통제되지 않은 수상자들의 수상소감에서도 드러났다. 한때 스포츠 선수들의 연행에서 문제가 되었던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발언, 전현무와 서경석 등이 코가 땅에 닿도록 감사하며 호명한 노OO 국장님이나 준석이, 원석이, 재호 형이 누군지 시청자들은 알 길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기획사 사장님, PD님, 메이 크업하는 누나들이 정녕 고맙다면 국민들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인사하기 바란다. 수상자마다 경쟁적으로 하니 시간도 아깝다.

지상과 방송들의 연말 방송대상은 객관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었다. 화제를 모았던 프로그램과 연예인들이라고해도 시상식장을 지키지 않은 경우, 상을 준 적이 없다. 그들은 결과를 미리 알고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

그러면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말이면 지상과 3사가 경쟁적으로 내보내는 것일까? 이유는 시청률과 광고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10%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자랑한다. 이에 따라 광고도 잘 팔린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쓰고 있는 지상과는 사회적 책임이 크다. 이런 방송사 집안 잔치격인 전파낭비를 언제까지 시청률이 좋다고, 광고가 잘 팔린다고 계속하고 있을 것인가. 특히 공영방송들이 민방과 똑같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보내는 것은 정체성 문제도 야기한다. 지난해 방송시평에서 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대상과 방송사별 연말 방송대상들을 통합해 객관성 있는 방송상으로 운영해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세계적인 문호 장 폴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부함으로써 더 유명해졌다. 박두진 시인과 박경리 작가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추대를 거부했다. 우리 연예계에는 상 나눠주기 산타클로스식, 연말 방송대상 수상을 거부할 스타는 없는가? 

## 채널A·TV조선,

종합편성TV 4개 채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내용이 밝혀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채널A, TV조선이 지난해(2015년) 출범 4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TV조선은 지난해 매출1100억~1200억원과 1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채널A는 영업이익-경상이익 모두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2015년 한 해 동안 매출 1,139억원을 올리고 당기순이익 29억원을 기록했다고 동아일보사 측이 밝혔다. 2015년의 매출액 1,139억원은 전년도 매출액 924억원에 비해 23.3% 증가한 것이고, 당기순이익 29억원은 전년도 -84억원에서 113억원이 증가된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개국한 양사는 출범 4년만에 매출 1000억원 돌파와 함께 첫 흑자 전환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이런 추세는 재작년(2014년) 실적에 대폭 개선되면서 예견돼 왔다. 실제 채널A와 TV조선의 작년 매출은 전년도보다 각각 37.5%, 23.3%씩 증가했다. 영업손실도 같

| 종편 4사 매출 및 영업이익 |       |         |        |
|-----------------|-------|---------|--------|
| 종편              | 2013  |         | 2014   |
|                 | 매출액   | 영업이익    | 매출액    |
| 채널A             | 672억원 | -364억원  | 924억원  |
| JTBC            | 891억원 | -1553억원 | 1305억원 |
| MBN             | 782억원 | -322억원  | 927억원  |
| TV조선            | 715억원 | -233억원  | 883억원  |

## 매체 영향력 KPI

### 여론집중도조사, 조선-

지상과TV 방송사들의 이용점유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이용점유율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위원장 윤영철·연세대학교수)가 실시한 ‘여론 영향력 점유율’ 조사에서 신문-TV-라디오-인터넷 등 전체 뉴스매체를 합산한 결과 KBS1·2TV 및 라디오 등을 거느린 KBS 계열이 1위로 기록됐다.

이 조사에서 KBS 계열은 17.5%, 조선일보 계열 11.1%, 연합뉴스 계열 9.9%, 동아일보 계열 9.7%, MBC 계열 7.6%, SBS 계열 7.1%, 중앙일보 계열 6.4% 순이었다.

KBS 계열 외에 MBC, SBS 계열 모두 조선, 연합뉴스, 동아일보 계열에 밀린 것이다.

신문 이용 점유율은 조선일보가 24.6%였고 중앙일보(15.7%), 동아일보(14.2%) 순으로 나타났다.

독자들이 어떤 경로로 인터넷 뉴스를 가장 많이 보는지 조사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 이용 점유율(포털 제외) 조사에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 저널리즘

## Inside Journalism

## 언론을 말한다

### 4년만에 흑자 실현

은 기간 동안 각각 62.4%, 48.1%씩 줄어들었다.

다른 종편과 달리 매년 대규모 투자를 해 온 JTBC는 지난해 매출 2000억원을 처음 돌파했다. 영업손실의 경우 전년(860억원)보다 38.4%가량 줄어든 530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JTBC는 종편 범주를 넘어 광고주들에게 ‘5대 채널’(지상과 3사, tvN)로 인식돼 있다”며 “내년이나 내후년엔 흑자전환을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MBN은 영업손실을 전년보다 3분의1 수준으로 떨어뜨렸지만 흑자는 달성하지 못했다.

채널A, TV조선 양 사가 약진을 보인 것은 시청자층의 저변 확대에 따른 마케팅광고 증가 효과도 있지만 제작 프로그램을 최소화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TV조선 관계자는 “종편 시청률이 높아지면서 마케팅광고가 많이 늘어난 게 흑자 전환의 원동력이 됐다”며 “올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9]

| 영업이익 추이 |              |          |
|---------|--------------|----------|
| 2014    | 2015         |          |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 -137억원  | 1100억원       | 흑자전환     |
| -860억원  | 2000억원 이상    | -530억원   |
| -165억원  | 1100억원       | -50억원 이내 |
| -121억원  | 1100억~1200억원 | 10억원 안팎  |

### BS계열 1위 기록

#### 연합-동아일보 계열 순

보고서는 이 같은 종편·보도 채널의 약진에 대해 “최근 텔레비전 방송 부문의 뉴스 이용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여론 형성 조건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2010년 여론집중도조사위를 출범시켜 매년 매체별 집중도와 이용 점유율 등을 조사해오고 있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TV 방송 이용 점유율 조사는 방송법상 시사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한 방송사 10곳을 대상으로 모든 보도 프로그램의 1년 평균 시청률과 편성 시간, 방영 횟수 자료를 이용해 산출했으며, TV 시청률은 닐슨컴퍼니코리아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8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신문 이용 점유율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5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 중 종이 신문 열독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했다.

인터넷 뉴스 이용 점유율은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웹사이트 체류 시간 데이터를 활용했다. [9]

# ‘87체제’ 탈피 ‘4·13선거혁명’ 촉구

대한언론인회 회우 김진현 전 문화일보 사장이 2016년 시민사회 합동신년회에서 “지금은 혁명전야”라며 “무중력의 혼돈을 탈출할 문명사적 혁명·문명의 패러다임시프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전 사장은 ‘1987년 체제’가 산출한 ‘지역패권주의’ ‘민주화 제일주의’ ‘통일 지상주의’ ‘부패공범화’를 털어내는 4·13선거혁명으로 도착적(倒錯的) 근대화를 바로잡자고 역설했다.

#### 공동체 의식 기초 새정치 역설

2016년 신문의 어젠다도 선거를 통한 ‘87년 체제’ 30년을 뛰어 넘는 정치 개혁이다. 영향력 있는 신문들은 1월에 김진현 회우가 제기한 선거혁명·새 패러다임 창조론과 같은 메시지를 사회에 던졌다. 북한 수소탄 실험, ‘일본군 위안부’ 논란, 정치권의 이합집산, 국회법 개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천륜을 깬 윤리파탄’ 등을 조명한 탐사보도와 칼럼 사설들은 전근대·현대를 융합하는 새 질서 촉구였다. 양승환 연세대교수는 이른바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들은 소외와 배제의 정치를 조장해왔다고 비판했다. 집권 세력은 승자와 패자, 지지자와 반대자를 아우르는 통치 연합 보다 지지 세력 중심의 지배 연합을 형성하여 특정계층·지역·이념·집단을 배제시키는 분열의 정치를 해왔다고 양교수는 지적한다. 정치개혁을 공론 주제로 설정한 1월 신문들은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신세력의 출현과 새정치를 역설했다. 한겨레신문 김동춘 칼럼은 (1.20) “한국의 갈라진 두 야당은 대중의 변화 열망을 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투쟁을 덮고 있다”고 비난하며 “실질적인 정치 빅뱅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3당 대표 주자와 몇 명의 영입 인사가 정치를 바꿀 수 없다.”며, 영입된 새 인물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검증하는 신문 보도는 눈속임”이라며 정파주의 선거보도의 한계도 비판했다. ‘국회는 정말로 문을 닫아 건 것인가’(한국, 1.20) ‘정의화 의장 총선전 선진화법개정에 정치 생명 걸라’(동아, 1.23) ‘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가 책임지고 바꿔라’(중앙, 1.23) ‘국민의당의 법안 처리 협조 주목할 만하다’(국민, 1.22), ‘박근혜 대통령의 부적절한 서명정치’(중앙, 1.21) 등 사설이 정치 파워엘리트의 일탈을 감시 감독 경고하는 정치적 기능을 충실히 했다. 그러나 정치학자들은 총선 앞둔 “1월의 정치 기사가 당파·이념·인물에 매몰돼 20대 총선의 과제와 이상적인 정치인상 등을 설정하는 사회통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 정당과 인물을 선전 변호하는 정파주의도 탈피 못했다”고 비판한다.

신문시평



**박석홍**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전 언론법학회 감사

## 특정黨-인물 변호 정파주의 여전 ‘전교조 법외노조’ 심층해부 미흡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미방위조약 재점검 등 한미 안보외교 강화와 자주 국방 결의를 경고 했다. 북한 수소탄 실험 후 오바마는 핵 폭격기 무력시위는 했으나 연두교서에서 북핵을 거론하지도 않았으며 중국도 핵실험 후 북한 제재가 없었다. 김태효 성균관대교수의 조선칼럼 (1.18)은 “남북 대화를 무조건 평화로 포장하고, 북한정권을 만족시키는 엉뚱한 곳으로 국민 세금을 보내면서 표를 달라고 했던 정치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라고 정치권에 질문하며 “주변국들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변국들은 그들 국가의 이익에 충실한 한반도 전략을 구사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팽택 기지가 쿠바 판타모 기지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혈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정치 학자들은 조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신년 업무 보고를 받으며 “북핵 문제 근본적 해결은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도 ‘대한민국, 결단해야 산다’는 칼럼(조선, 1.9)에서 “생사기로 서게 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국가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수소탄까지 실전 배치하려 하는 북한을 강 건너 불로 여기는 것은 비주체적이며 반시민적”이라며 국민의 각성을 촉구했다. 자주국방과 국익 우선 외교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교육을 신문이 선도해야 할 것이다.

#### ‘전교조 법외노조’ 심층해부 아쉬워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21일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게 고시한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여

부를 다룬 항소심 재판에서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교육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이 전교조 재판과정과 교육부 교육위원회 전교조 대응 등을 상보했을 뿐 대체로 판결문 보도 수준이었다. 21일 고법판결로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가 됐기 때문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제약되며,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단체협약 교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전처럼 할 수 없고 다수의 노조 전임자 파견 근무도 어렵게 됐다. 전교조는 1987년 결성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모태가 되어, 1989년 5월 ‘교사도 노동자’라는 기치 아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변신, 1999년 6월 김대중 정부가 교원노조법을 제정, 합법노조로 창립됐다. 창립 당시 조합원 6만 2,000여명이 노무현 정부시절 9만4,000명으로 대폭 늘었으나 현재 5만여명으로 격감했다. 초창기 전교조는 ‘촌지 없애기’ ‘학생 체벌 반대’ ‘사학 비리 근절’ 등 ‘참교육 실현 운동’을 펼치며 언론의 지지를 받았으나 좌편향 정부 집권이후 이념 편향적 교육과 집단행동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교조출신 국회의원 교육감 등이 배출되기도 했으나 일부 전교조교사들의 빨치산 추모제 참여수업,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는 이념 편향적 수업 등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사교과서 좌편향 논란도 일부 전교조 교사의 이념 편향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신문 사설(1.23)은 전교조가 교육 현장의 모순을 바로잡고 부조리를 타파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자 본연의 자세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투쟁에 밀려 마비됐던 교육기강을 바로잡고 교육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6년은 교육 부조리를 척결하고, 교육이념, 교사양성제도, 교사 학생 평가 부활, 학제 등 교육 전반 문제를 재검토 개혁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시인 헨리 반다이크의 ‘무명교사 예찬’을 한국 선생님들에게도 바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사상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 한상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국부 발언 시비는 한국현대사를 정리 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태다. 역사교육 정상화를 내건 박근혜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 정체성 확립과 땅에 떨어진 국민 윤리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9]

# ‘대만인 선언’을 보며 북한에 묻는다

나는 요즘, 전 대만 총통 이등휘(李登輝) 선생 때문에 나 혼자서 저절로 유쾌해지곤 한다. 보통 정치인의 발언은 애매모호하기 마련이지만 이등휘 선생의 발언은 너무나도 솔직하고 확신에 차 있다. 우선 내가 정기구독하고 있는 일본의 시사평론 월간지 ‘Voice’의 2015년 9월호에 실려 있는 이 선생의 ‘긴급투고’ 내용을 요약해보자.

〈나는 1923년 대만 북부의 항구 도시 ‘담수’(淡水)에서 가까운, ‘삼지’(三芝)에서 태어났다. 당시 대만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고, 따라서 나는 자동적으로 일본 국민으로 태어났다. 구제(舊制) 대북(臺北) 고등학교를 거쳐, 일본 경도(京都)제국대학 농학부에 진학했다. 대학 재학 중에 일본군에 지원하여 사관후보생으로, 고사포 부대에 배속되었다. 미군의 폭격기에 대항하여 고사포를 쏘다가 소대장이 전사하자, 내가 대신 부대의 지휘를 맡았다. 적군의 소이탄 파편이 코끝을 스쳐 지나갔으나, 죽지 않고 살아났으며 이때 나의 계급은 견습 사관이었다.

나의 친형은 일본군 육전대(지금의 해병대)에 들어갔다가, 필리핀에서 전사했고, 위패는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있다. 나는 마치 못해 일본군에 자원입대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일본의 군인으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일본군에 들어갔다. 나는 일본인으로 태어났고, 그 후는 대만인으로 살아왔다.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중국인이었던 적이 없다.〉

실로, 놀라운 발언이었다. 그것도 일개 필부의 발언이 아니라, 대만의

대통령까지 지낸 최고 정치 지도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생각해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2차 대전에 패전하자, 중국 본토에서 모택동군대와 자웅을 겨루다가 패하여 이곳으로 밀려갔던 장개석 군대가 대만의 주인이 된 이후, 우리는 대만을 늘 중국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세계가 동서 양대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는 동안, 중국 본토는 소련 휘하의 공산진영의 일원이 되었고, 반대로 대만의 장개석 정권은 자유진영의 한 나라가 되었다. 그동안 중공 정권은 대만을 도로 찾기 위해 여러 번 군사행동을 일으켰으나, 중공측이 기도했던 대만흡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시에 대만의 장개석 정권이 그 목표로 내세웠던, 본토수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해협에는 언제나 미해군의 항공모함이 드나들었다. 사태는 그러저럭 그렇게 현상유지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러다가, 미국과 중공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신호가 되어, 중공은 서방측의 여러 나라와 국교가 열리게 되었다. 공산권의 우두머리였던 소련은 냉전에서 패배하였으며, 유엔에서 대만이 차지하고 있

## 박현태 칼럼



박현태

·본회 원로회우  
·전 KBS 사장

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자리도 대만 대신 중공이 물려받았다. 중공은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는 유지한 채 경제체제를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한글 탈태하여 오늘날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 있다. 이제는 남지나해에 산재해있는 암초를 매

립하여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고, 그곳을 군사기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중국은 허다한 국내 문제를 감추고, 인민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군사대국화를 서두르고 있다. 얼핏 보면, 이제 중국이 대만을 먹어치우는 일은 ‘식은 죽 먹기’가 되었다는 형국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허사가 될 전망이다. 작년에 당시 대만의 집권여당이던 국민당 마영구(馬英九) 정권은 중국과의 급 접근을 시도하다가 이른바 ‘해바라기 운동’의 역풍을 만나, 대학생들에게 국회를 한 달 가까이 점거당하는 수모를 겪더니, 며칠 전(2016. 1. 16), 시행된 총통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진당(民進黨)에게 정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다.

이등휘 전 총통은 이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93세가 되어 있는 나는 이날의 민진당 승리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지원할 작정이라고 선언했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대만흡수는 그림의 떡이 되었다. 대

만인들이 자신들은 대만인이자 중국인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한, 대만의 흡수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我是臺灣人!’ 이것은 앞으로 중국의 장래를 점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대만 사람들은 만약 중국에 문호를 개방하거나, 중국의 일부가 된다면 대만사람들은 직장도, 집도 모두 밀물처럼 밀려드는 중국인들에게 빼앗기고, 결국 대만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진당은 중국과는 어디까지나 ‘현상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상유지만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대로 따로따로 살자는 현상유지인 것이다.

‘삼국지연의’의 초입에는, 유비 현덕이 황하를 내려다보면서 중얼거렸다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 ‘천하대세는 나뉘진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지 오래면 반드시 쪼개진다’(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 고, 그러나 ‘합쳐지지도 않았고, 쪼개지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중국과 대만은 따로따로였다’,고 주장하고 나선다면, 새삼스레 쪼개지고 합쳐지고가 아예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나는 우리의 북쪽에 도사리고 있는 김정은 일당을 향하여 묻고 싶다. 그대들은 북한의 인민들을 노예상태로 몰아넣고 있으면서, 70년 동안 오로지 3대에 걸친 일족의 독재정권 유지에만 골몰하며, 우리를 핵폭탄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들은 조선민족이냐. 동시에 우리 국내의 이른바 진보 좌파세력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북에 있는 저들을 우리의 ‘한겨레’로 보고 있느냐. 지금 우리의 당면한 소원은 과연 통일이나. [필자의 글]

새해 아침, 필자는 현충원 정상인 ‘서달산’에서 해돋이를 보고 5분여 거리에 있는 서울 현충원을 찾았다. 새해 아침이라 박근혜대통령이 현충탐에 참배를 마치고 돌아갔다.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필자가 찾을 즈음에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씨 등 여야 정당 대표들이 참배를 하고 있었다. 필자도 뒷줄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참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역대 대통령의 묘소를 둘러보기로 했다.

맨 먼저 지난 연말에 서거(逝去)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 아직 공사가 덜 끝난 미완의 묘지였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마지막으로 채명신 장군의 묘지까지 둘러 봤다. 채 장군은 제2번 묘역 월남참전 용사들과 같이 한 평 남짓한 사병 묘역에 안장되어 있었다.

장군 묘역이 있는데도 그가 남긴 유언에 따라 사병들과 같이 일반 묘역에

## 국립묘지 이대로 좋은가



김휴선

·본회 회우  
·전 MBC보도국 부국장

묻힌 것이다. “나는 죽어서 나와 같이 싸우다 전사한 전우(戰友)들과 함께 묻어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그대들 여기 있기에



월남참전병사 묘역.



채명신 장군 묘비.

조국이 있다.”고...

선진국에서는 군인 묘역(墓域)에 계급 구분이 따로 없다고 한다.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도 전장(戰場)에서 산화한 군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 서울현충원은 사병들 묘역, 장군 묘역, 유공자 묘역, 대통령 묘소 등으로 구분돼 있다. 죽음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여기에 사망한 직업군인들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평상시에 퇴역한 장군들을 사후에도 특별 대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대개 국가 원수나 대통령의 유해는 기념관이나 가족과 같은 곳에 안치되어 있다고 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조그마한 예배당에 안치돼 있고 드골대통령도 아들 옆에 묻혀 있다고 한다.

11면으로 이어집니다.

# '혁신' '참신' 가면 구태정치 몰아낼때

“쓰레기통 장미꽃” 조롱

북한의 6·25 기습남침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으로 도망쳐야 했다. 피난 살이 국회는 1952년 7월4일 밤 9시반 이승만의 대통령직선 및 양원제안과 반이승만 세력의 내각제안을 발채(拔萃)한 ‘발채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개헌안을 둘러싸고 ‘백골단’ ‘땃벌떼’ 동원, 부산 일대 계엄령 선포와 해제, 국회의원 통근버스 헌병대 견인, 내각제 주동 의원들 연행 등을 벌였다. 전선에 투입된 보통 사람들의 자식들은 적의 흉탄에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후방에선 특권을 누리는 정치인들이 권력쟁취를 위해 싸움판만 벌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영국 런던의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을 기대하는 것 보다 더 힘들다.”고 조롱했다.

그 후 64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회정치는 꽃피지 못하고 잡초와 독초들로 무성하다. 국회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통령령을 위한 ‘들러리’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민주화되면서 국회는 해머·빠루 등을 휘두르며 패싸움질하는 ‘깡패 국회’로 날뛰었다.

이젠 ‘몸싸움방지법’에 막혀 쟁점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로 정국이 마비되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불과 5% 밖에 안 된다. 작년 5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반응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고작 5%에 불과했다.

5%에 그친 지지 여론은 1990년 11월 프랑스의 주간지 ‘누엘옵세바퇴르’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를 떠올리게 한다. ‘공익을 위해 공헌하는 직업’으로는 간호사, 육체노동자, 교사, 농민, 기술자, 우편배달원, 경찰관 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공익을 위해 가장 공헌하지 않는 직업’으로는 창녀, 국회의원, 고급공무원이 꼽혔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공익을 위해 가장 공헌하지 않는 직업을 묻는다면 프랑스와 같이 창녀와 국회의원을 꼽지 않을까 두렵다.

私益 쫓는 패거리집단 못벗어

정당은 공공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며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집단이다. 파당(派黨), 사당(私黨), 패거리와는 달라야 한다. 그러나

특별기고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  
·전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당은 없고  
계파만 가득  
정책개발경쟁 실종

탈당-분당-창당  
‘변화상징’ 치부하면  
망국행태 못막아

우리 정당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공익을 위한 정당 구실을 못한다. 공익 보다 사익을 쫓는 파당·사당·패거리 수준을 면치 못한다. 새누리당에 정당은 없고 ‘진박’ ‘비박’ ‘진박(眞朴)’ ‘가박(假朴)’ 등 계파만 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친노’ ‘비노’ ‘386’ ‘486’ ‘호남’만 있고 정당은 없다. 심심하면 당명도 갈아치운다.

우리 정치인들에게 당권 장악을 위한 계파간 경쟁은 치열해도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 경쟁은 없다. 계파간 물고 뜯기에 정신이 팔려 정책개발엔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정적 또는 경쟁자에 대해선 “국보위에 참여 했다”느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참여 했다”느니 하며 지난날 행적을 서로 들춰내며 흠집 내기로 날을 샌다.

그런 정당에게서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작년 말에도 국회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할

오늘의 시대

이흥우 (본보 편집위원·상명대 석좌교수)



력제고특별법 그리고 노동개혁 5대 개정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몽개 버렸다. 건디다 못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인단체들은 지난 18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올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게는 또 탈당·분당·창당 고질병이 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으며 호남 지역 야권 정치인들이 줄줄이 뒤를 이어 이탈하고 있다.

안 의원은 탈당하면서 ‘혁신’ ‘참신’을 내세우며 “낡은 진보와 수구 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추구하겠

다고 했다. 그러나 탈당·분당·창당 반복은 ‘혁신’도 ‘참신’도 ‘합리적 개혁’도 아니다. 안 의원의 국민의당은 입법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은 의원을 입당시켰다. ‘혁신’ ‘참신’의 가면을 쓴 낡은 구태정치의 민낯일 따름이다.

‘배신’을 정치공학으로 착각

미국 같은 선진 정당정치 국가는 탈당을 ‘배신 정치’로 배척한다. 2010년 미국 앨라배마 주 연방 하원의 파커 그리피스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 공화당으로 옮겼다. 그러자 그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보좌관 12명중 11명은 모두 사퇴서를 제출했다. 비서실장은 성명을 발표, ‘건전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로써 그리피스 의원을 위해 더는 일할 수 없다.’며 ‘앨라배마의 지역 대표로 뽑아준 유권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은 물론 언론과 유권자도 탈당이나 분당을 ‘혁신의 기수’ ‘용기있는 결단’ ‘변화의 상징’ 등으로 치켜세운다. 정치인들은 저 같이 경솔한 반응에 고무되어 탈당·분당·창당 등을 고도의 정치공학으로 착각한다. 탈당과 창당을 일삼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치신념의 일관성 결여, 기회주의, 인내심 결핍, 심한 변덕, 신의 결여, 무원칙, 자기도취 등이 남 보다 강하다.

미국의 가브리엘 알몬드와 시드니 버바 두 정치학 교수에 따르면,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국민의 정치문화수준에 비례한다고 했다. 법률과 정치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운영하는 국민의 민주주의 정치의식이 미개하면 정치 수준도 미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혁신’ ‘참신’의 가면을 쓴 구태정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알몬드와 버바가 지적한 대로 한국인의 정치문화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유권자들이 깨어나 선거에서 낡은 구태정치인들을 몰아내야 한다.

유권자와 언론이 탈당·분당·창당을 일삼는 정치인을 ‘혁신의 기수’ ‘변화의 상징’으로 치켜세운다면 망국적 구태정치는 날로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여의도 국회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백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더 기다릴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일어나 ‘혁신’ ‘참신’의 가면을 쓴 구태정치인들을 몰아내야 한다. [국문]

10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테랑 대통령도 가족과 같이 안장 돼 있다. 다만 국립묘지라 할 수 있는 파리의 ‘팡테옹’은 빅토르 위고, 볼테르, 루소, 에밀 졸라, 앙드레 말로, 쿠리 부인 등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국가를 빛낸 위인(偉人)들과 천재들이 안장 돼 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죽은 뒤에 국가의 검증을 거쳐 안장된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연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치렀다. 그날은 영하 6도의 눈발까지 날리는 추운 날씨였다. 때문에 식장은 들성들성 비어 있었다. 심지어는 식장에 참석한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장례(葬禮) 순서를 기다리느라 뽕뽕 얼어 감기를 앓았다는 후문이다.

물론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치르기는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왕조시대(王朝時代)의 국상(國喪) 같다는 느

낌을 가졌다. 유족의 뜻에 따라 노제나 추모제와 같은 행사는 생략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장례식도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국립 서울 현충원은 17만 5천기로 한정돼 있다. 남포동에 1만 4천여기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반묘역에는 더 들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대전 현충원에 제2 묘역이 마련돼 있고 대통령 묘지가 4군데나 조성 돼 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이미 그곳에 안장돼 있다. 우리나라국립묘지처럼 사병과 장교 그리고 장군으로 구분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다. 평소에 사망한 직업군인들까지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장례식부터 묘지까지 현충원 운용제도를 선진국 사례를 통해 언제까지 국민 혈세로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국문]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여우의 영리함과 민첩함에 감탄하여 여우를 동물의 왕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나서 하루아침에 신분상승을 통해 ‘권력의 서열’이 바뀐 여우가 어떻게 하는가를 몰래 지켜보았다.

벼락치기로 동물의 왕이 된 여우가 어느 날 가마를 타고 거드름을 피우며 행차를 하는데, 제우스가 그 앞길에 풍덩이 한 마리를 풀어놓았다. 풍덩이가 가마 주위를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성가시게 굴자 참지 못한 여우가 왕의 체면이고 위엄이고 돌볼 겨를도 없이 가마에서 뛰쳐나가 풍덩이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것을 본 제우스가, “역시 타고난 천성은 어쩔 수 없군!” 하고 여우를 전처럼 천한 신분으로 되돌려놓고 말았다.

이것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다. 이 우화는 사람이 아무리 벼락출세를 하거나 벼락부자가 되더라도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출랑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일러주고 있다. 이솝은 서기전 6세기를 살다 간 그리스의 우화작가다.

전쟁노예 출신이라고 전하니 인생의 단맛·쓴맛을 골고루 맛보았을 것이고, 인간의 속성에 관한 예리한 통찰력도 지녔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의 우화 하나하나에 촌철살인의 날카로운 경고와 기지와 해학과 풍자가 담겨 있다. 이솝우화의 매력은 직설적 표현보다 우회적 비유와 묘사를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주는데 있다.

제 분수를 모르고 설치는 사람, 지도자 자질이 부족한 열간이 같은 인간들

## 이솝우화의 교훈

### 溫故知新



####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에게 주는 경고의 우화로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 날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이렇게 불평했다. “네가 나보다 뭐가 잘난 것이 있다고 늘 앞장서서 가느라 말이다. 이제부터 내가 앞장에 서야겠다.” 그러자 머리와 몸통이 말렸다. “눈도 코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앞장을 선다는 거냐?” 그러나 꼬리는 막무가내로 머리와 몸통을 이끌고 앞장서 땅바닥을 기어갔다. 그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가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제야 꼬리가 머리에게 빌었다. “머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꼬리 주제에 머리노릇을 하려고 한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유명한 까마귀와 여우의 이야기도 지도자의 자질과 품격에 관해 일깨워주는 의미가 깊다. 까마귀가 고기 한 덩이를 훔쳐 나뭇가지에 앉아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는 그 고기를 빼앗아 먹으려고 꼬리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새 가운데서 너야말로 가장 아름답구나!

우아한 몸매는 위엄이 넘쳐나고 윤기가 자르르 도는구나! 어느 모로 보나 새들의 왕이 되기에 충분해. 그런데 멋진 목소리까지 갖췄다면 확실히 왕이 될 수 있을텐데...” 그러자 까마귀가 자신의 목소리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려고 부리를 벌려 까악! 하고 우렁차게 울었다. 그 통에 고깃덩이가 떨어지는 것도 몰랐다. 그 순간을 기다리던 여우가 찹싸게 달려가 고깃덩이를 받아 꿀꺽 삼키고 이렇게 놀렸다. “아아, 까마귀야!

만일 거기에 올바른 판단력만 갖췄다면 너는 새들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텐데, 참 안됐구나!”

‘신과 인간’은 이솝우화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훌륭하게 표현한 이야기로 꼽힌다. 처음에 신이 사람과 동물을 만들었을 때 생각이 없는 동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으므로 그런 동물들을 망가뜨려 사람으로 다시 바꾸었다. 그런 까닭에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게 되었다. 요컨대, 사람의 탈을 썼다고 해서 모두

사람다운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도 여우같은 자라느니, 늑대같은 자라느니, 곰처럼 미련한 자라느니 하는 말들이 떠돌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끼리도 걸핏하면 무슨 새끼니, 무엇같은 놈이니 하고 동물을 빗댄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으니 이런 수준 미달을 민의의 대표라고 뽑아 혈세를 세비로 퍼주는 우리 국민은 얼마나 한심한가.

세상에 정직한 사람보다도 거짓말쟁이가 더 많기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나보다. 한 나그네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가에 홀로 서 있는 여인을 발견했다. “당신은 누군데 여기 혼자 서 있는 거요?” 여자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진실’입니다. 전에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갈수록 늘어나서 이제는 내가 머물 곳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이솝우화는 ‘학과 공작’이다. 어느 날 공작이 학을 보고 이렇게 비웃었다. “나는 색깔도 화려한 것까지 아름다운 깃털을 입고 있는데, 너는 별로 이렇다 할 것이 없구나!” 그러자 학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나는 하늘 높이 날아다니며 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래하지. 너야말로 기껏해야 여러 들새처럼 땅에서 뒤뚱거리며 걸어 다니는 것이 고작 아니냐?” 아무리 권세가 좋고 돈이 많으면 뭐하나. 화려한 치장의 공작이나 뒤뚱거리는 오리나 땅위에서 기어 다니기는 마찬가지. 구만리장천을 춤추며 노래하는 학의 경지에 비할 손가! ㉞

## 본회 이사회 2016예산안 등 심의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월 12일 오전 본회 사무실에서 제149차 이사회를 열고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이사회에 보고된 2015년도 업무내용과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다.

### <종합보고>

2015년은 19대 김은구 회장 취임 2년차가 되는 해로 김은구회장이 약속했던 퇴직언론인실태조사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되었고 본회 예산으로 실시되던 문화탐방 행사를 언론재단 지원으로 실시함으로써 본회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대한언론’ 발간, ‘언론인의 길 그 때 그 현장 못다한 이야기’ (5집) 발간과 대한언론상, 사진인간대상 시상, 6·25참전언론인회 활동, 재외동포언론인대회 등 예년 사업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

특히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과 국방부장관 명의의 6·25참전언론인 명패를 프레스센터에 헌액(2014년 6월)한데 이어 2015년 6월 이 명패를 국방부브리핑 룸에 헌액한 것도 특기할 만한 사업수행이었다.

대한언론인회는 이밖에도 통상적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149차 이사회.

인 회원복지증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기왕에 통상적으로 수행한 후생복지 사업 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특히 우리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이 비수기에 대명콘도를 이용할 경우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 적지 않은 회우들이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본회 정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규모 1억 6천 2백여만 원(일반회계 87,027,196, 특별회계 69,183,317)규모의 예산안이 심의되었으나 2016년도 종합사업계획은 20대회장 취임 후 시행될 새 사업계획에 준해 실행 예산을 재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사회는 또한 재정압박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1)각종 수익사업 창안 (2)각종 운영경비 절감 (3)광고 수주 확대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㉞

## 회우들이 펴낸 신간

### 서옥식 회우 ‘북한 교과서 대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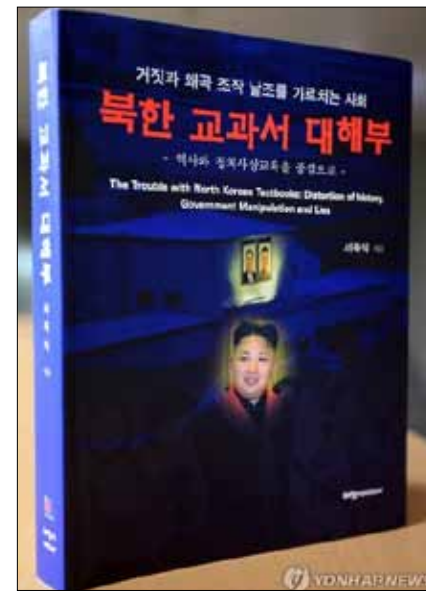
서옥식 회우(전 연합뉴스 편집국장)가 최근 <북한 교과서 대해부>란 저서를 출판했다.

이 책은 북한의 초·중·고등학교 역사, 국어, 사회도덕, 음악, 영어, 산수, 수학, 지리, 자연, 물리, 화학, 생물 교과서는 물론 대학의 일부 교재에 나타나 있는 왜곡, 조작, 날조, 과장, 대남 선동 사례를 광범위하게 소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북한 교육당국의 교수안(教授案)에 따라 교사와 학생이 필독해야 하는 김일성회고록과 전기,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선집같은 보충교재와 기타 학습참고물인 언론기사, 사진, 그림 등에 나타난 왜곡, 조작, 날조 사례도 포함시키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역사 왜곡과 날조는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고대이후 한일관계사에 대한 왜곡과 일제식민정책에 대한 미화로 점철된 일본의 역사기술 못지않게 심각한 사안인데도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물론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북한의 역사왜곡, 날조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우리 민족의 바른 역사 정립 차원에서 북한의 역사왜곡, 날조 사례를 담은 책을 펴내게 됐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문제는 거짓·왜곡·날조의 역



사가 남북한의 정통성 논란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 남남갈등을 야기함으로써 통일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1948년 김일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으로 뽑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립을 위한 선거에 남한 유권자의 절대다수(77.5%)가 참여했다는 기막힌 내

13면으로 이어집니다.

##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④

### 치아결손 심장병, 치주질환은 유방암 요인

치 아 결 손 이 치명적 심장병, 치주질환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발병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최근 유럽예방심장 학 회 지(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가 치아결손이 있는 심장병환자는 치아결손이 없는 환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두 배나 높다는 스웨덴의 욥살라대학병원 임상 연구 센터(Uppsala Clinical Research Center) 심장내과 베딘(Ola Vedin) 박사 팀의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가 하면 학술지 암 역학, 바이오 표지와 예방(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 Prevention)은 치주질환이 폐경 이후 특히 흡연자에서 유방암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미국 버팔로 대학 공중위생과 보건의료전문직 대학(School of Public Health and Health Professions) 역학과 프로이든하임(Jo Freudenheim) 교수팀의 연구를 각각 게재했다.

베딘 박사는 세계 39개 국가 심장병환자 15,000명을 대상으로 3~4년간 추적관찰하면서 치아결손과 사망률을 비교 조사하였다. 관찰기간 동안 1,500명이 사망했는데 심혈관질환 705명, 뇌졸중 301명이었다.

이번 연구대상자들 중 16%는 치아가 하나도 없었고 40%는 거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의 치아결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 변수들을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치아결손이 원인이 된 심혈관사망이 6%, 뇌졸중 사망은 15%로 더 높았다.

또한 전체 치아가 결손되어 있는 사람은 온전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

관 질환에 의한 사망위험은 85%, 뇌졸중에 의한 사망은 67%가 더 높게 나타났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치아결손이 없는 사람에 비해 사망위험은 2배 높았다.

베딘 박사는 이번 연구는 심혈관질환이나 뇌졸중에 의한 사망이 치아 결손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평소에 치아관리를 잘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프로이든하임 박사는 여성건강계획연구(Women's Health Initiative Study)에 참여하고 있는 폐경기 여성으로 유방암이 없는 건강한 74,000명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치주질환이 있을 경우 전체의 2.7%인 2,000명에서 유방암이 발생하였다. 이는 미국 여성 평균 유방암 발생률 10만 명당 76명과 비교할 때 대략 35배에 이른다. 특히 연구기간동안 흡연을 하고 있던 여성 중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유방암 발생률은 32%로 대단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했다.

또한 20년 전 금연을 한 경우 유방암 발생위험은 8%였으나 20년이 안된 경우 36%를 나타냈다. [출처]

#### 12면에서 이어집니다.

용이 북한교과서는 물론이고 역사서에 기술돼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 남한에서 사용하는 일부 한국사 교과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술돼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학생과 주민들에게 가르치는 거짓의 광범한 유형을 보면 △5천년 우리민족 역사를 계급투쟁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으로 기술하고, 특히 김일성 출생이후 우리 현대사를 김일성 개인의 혁명역사로 바꿔버린 것, △실재한 것을 은폐한 것(김일성의 중국공산당 가입과 소련피난 및 소련 극동군 88정찰여단 첩보장교 복무사실 은폐, △실재하

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것(북한의 김일성정권 수립을 위한 투표에 남한 주민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기술, △남의 업적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챈 것, △역사적인 사실의 부정,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 왜곡, △비과학적인 내용의 기술, △초자연적인 현상의 조작, △역사적으로 고증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미흡한 것을 사실로 단정, △황당한 논리, △남한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 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필자는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다. [출처]

〈(주) 해맞이 미디어 발행·614쪽·값 25,000원〉

## 원로에세이 — 어제 오늘 사이

### 고운 해야 솟아라

최서영

·본회 자문회의 의장  
·전 코리아헤럴드사장



언론계에서 함께 일했던 옛 벗이 지난 1월초,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새해 인사말 뒤에 조지훈의 시 ‘낙화(落花)’의 몇 구절이 적혀있었다.

꽃이 지기로서니/바람을 탓하라

주렴 밖에 성긴 별이/하나 둘 스러지고/귀촉도 울음 뒤에/머언 산이 다가서다/촉불을 꺼야하리/꽃이 지는데/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평소 세상사가 좀 못마땅하면 참지못하고 포효했던 그가 서정이 넘치는 지훈의 시를 읊조리고 있다니 의외였다. 나이 탓에 그도 무기력한 늙은이가 되었는가 아니면 세속을 초탈해 신선의 길로 접어든 것인가. 아무튼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전화를 걸었다. 직접 음성으로 그의 근황이 알고 싶어서였다.

그는 강원도 용평에 머물고 있었다. 새해 벽두부터 하도 심란한 뉴스가 터지는 바람에 친구의 콘도를 빌려 숙박하면서 산행(山行)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는 중이라 했다. 며칠 전 가까이 있는 오대산 월정사를 다녀왔는데 젊은 시절의 조지훈이 이곳 승방에서 시를 썼다기에 평소 좋아했던 그의 시 한 구절을 적어 보냈노라 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리 세상사가 못마땅하고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더라도 함께 비분강개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보자고 했다. 그리고 요즈음 유행하는 ‘백세인생’이란 노래의 가사 몇 토막을 답신으로 보내주었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간다고 전해라/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2016년 새해는 북한의 핵폭탄 실험 때문에 벽두부터 모든 기대가 무개졌다. 동해에 떠오르는 첫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높은 산에 오르거나 동해 바닷가를 찾았다. 그리고 두 손 모아 새해 소원을 빌었다. 나라와 가정이 평화롭고 개개인이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망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미치광이들은 하필이면 이런 때를 골라 핵폭탄을 퍼부를 실험을 했다. 온 세상이 경악하고 분노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최상”이란 말이 나오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위기의식은 잠깐일 뿐 모두 무기력과 무사안일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갈등과 분열의 골은 좀체로 줄어들지 않고 지나친 자유 때문인지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시민 의식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드골의 회고록을 보면 “위기가만이 프랑스인을 단결시킬 수 있다”고 평소 단합할 줄 모르는 프랑스 국민성을 개탄한 사실이 쓰여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쳐도 단결 할 줄 모르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가. 특히 최근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작태를 보면 조선왕조를 망하게 만든 봉당정치의 당쟁을 연상케한다.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개혁을 담당했던 일본인 역사학자 시데하라(幣原坦)가 〈조선정쟁기〉라는 책을 펴낸 일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선왕조의 정치를 당쟁으로 규정,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정 일변도로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소이(細井肇) 같은 학자는 조선인 피 속에서는 당파싸움을 좋아하는 DNA가 있다고 극언한 일이 있다. 나는 일본 특파원 시절 이런 부류의 식민사관 학자들의 지론을 반박하느라 핏대를 올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할 말이 없다. 경제와 안보가 위험수위에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당리(黨利)당락에 매몰돼 당쟁만 일삼고 있다.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북한 미치광이들이 핵폭탄 공갈을 칠 때, 정치인들이 당파를 떠나 거국일치로 대응하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각종 시민단체와 이익집단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서울광장에 모여 국민총궐기대회를 열면서 한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까. 신문 방송 등 모든 언론매체가 앞장서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계도할 수는 없을까.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줄 모르는 우리 처지를 보면 마음이 처연해진다. 그러나 지나친 비판은 피해야한다. 새해에는 새해답게 새로운 희망과 설계를 해야한다. 근거 없는 낙관은 금물이지만 역사의 흐름은 우리편이다.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자멸을 앞당기는 자충수라는 것도 알아야한다. 역사에는 일정한 발전 법칙이 있고 시대적인 진운(進運)이 있다. 순리에 역행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외톨이가 되면 어떤 나라도 생존하기 어렵다. 중국 격언에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千人所指無病而死)라는 말이 있다. 왕따 당하면 끝이라는 뜻인데 지금의 북한이 바로 이런 꼴이다.

북한은 통치자가 혈통으로 세습되는 독재왕조 체제인데다 국가 운영 방식이 원시 씨족사회 수준의 조폭조직 형태로 되어있다. 21세기 개명 천지에 이런 나라가 가면 얼마나 가겠는가.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세계를 분노하게 만든 핵폭탄 광태는 그래서 자멸을 자초하는 몸부림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차분한 마음으로 박두진 시 ‘해’를 함장하면서 새해를 맞았으면 한다.

해야 솟아라/해야 솟아라

말갈계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이글이글 앓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출처]

## 회우동정

가나다순

### 제1회 강남이야기 공모전 입선



김지용(전 문화일보 편집부국장) 회우= 지난해 12월 강남문인협회 주최 제1회 강남이야기 공모전에서 본격 픽션 작품 ‘청담동 연가’를 출품, 입선했다. 명품 도시 청담동을 무대로 펼쳐진 사랑과 이별을 그린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시분과위 회원인 김 회우는 2016년 새해에는 시집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천향우회지’ 창간작업 맡아



정운종 상임이사(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1월 13일 오후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제천향우회에서 정운종이 사가 작성한 ‘堤川人의 憲章’과 정이사가 감수한 제천찬가(향우가)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정 이사는 또 올해 창간하게 될 제천향우회지(가제 ‘의림지’)의 편집위원장으로 위촉됐다.

###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5년 12월 31일 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 <정기총회 입금>

|              |                 |                  |                        |              |
|--------------|-----------------|------------------|------------------------|--------------|
| 강성구(16)      | 강승훈(14)         | 강진형(16)          | 계창호(14)                | 고수균(15)      |
| 권대웅(14,15)   | 권영국34(13,14,15) | 권영국44(16)        | 권영빈(14)                | 권영민(14)      |
| 권혁만(16)      | 김경철(14,15,16)   | 김기원(16)          | 김길홍(16)                | 김성모(16)      |
| 김두근(14)      | 김명수(14)         | 김상수(16)          | 김성령(16)                | 김성모(16)      |
| 김세경(16)      | 김시복(14)         | 김영일(16)          | 김용술(14,15,16)          | 김원재(15)      |
| 김윤곤(16)      | 김재관(14,15)      | 김정기(14)          | 김정훈(12,13,14)          | 김종범(16)      |
| 김진기(16)      | 나형수(14)         | 남선현(14,15,16)    | 노영순(16,17)             | 노진호(15)      |
| 도준호(16)      | 민정기(16)         | 박범진(16)          | 박세호(14,15)             | 박승채(16)      |
| 박연호(16)      | 박화진(13,14)      | 백승대(16)          | 서진섭(13,14)             | 성병욱(16)      |
| 송복(12,13,14) | 신광식(16)         | 신광연(14,15)       | 신동식(16)                | 신동호38(15,16) |
| 심재복(17, 18)  | 안상현(16)         | 엄영섭(16)          | 오인문(13,14)             | 원종선(16)      |
| 유우정(16)      | 유지호(16)         | 윤재홍(15)          | 이경문(09,10,11,12,13,14) |              |
| 이경재(14,15)   | 이구열(16)         | 이기한(14,15,16)    | 이달영(13,14,15)          | 이동화(16)      |
| 이두석(14)      | 이민희(16)         | 이성호(16)          | 이억순(16)                | 이영일(16)      |
| 이욱용(16)      | 이윤래(15,16)      | 이재원(16)          | 이종연(14,15)             | 이준기(14)      |
| 이준우(16)      | 이청수(13,14)      | 이학주(15)          | 임종건(15,16)             | 전영우(16)      |
| 전용호(16)      | 전우벽(16)         | 정구종(15)          | 정웅교(15,16)             | 정종표(15)      |
| 정한상(15)      | 정홍택(13,14)      | 조강환(11,12,13,14) | 조규만(16)                |              |
| 지용우(15,16)   | 최경호(15,16)      | 최명우(14,15)       | 한광희(16)                | 한규남(14)      |
| 홍용수(16)      | 홍진태(16)         | 황종건(13,14)       |                        |              |

#### <통장 입금>

|                            |                         |               |            |            |
|----------------------------|-------------------------|---------------|------------|------------|
| 강두모(16)                    | 강한필(16)                 | 고귀남(16)       | 구만완(16)    | 김규문(16)    |
| 김성배(16)                    | 김용발(17~26, 향후 10년치 연회비) |               |            | 김재근 15,16) |
| 김진현 (09,10,11,12,13,14,15) | 김창구(16)                 | 김충한(14)       | 김휴선(16)    | 박실(16)     |
| 문인수(16)                    | 박갑술(16)                 | 박문두(16)       | 박순신(16)    | 심상대(16)    |
| 백인호(15)                    | 성낙오(16)                 | 송경섭(16)       | 신정호(16)    | 오건환(15,16) |
| 심의표(15,16)                 | 안홍열(14,15)              | 여구만(16)       | 여영무(14,15) | 이배영(16)    |
| 오동환(15, 16)                | 오전식(14,15,16)           | 윤홍섭(16)       | 이철영(16)    | 이태자(16)    |
| 이보길(14)                    | 이재권(14,15)              | 이종기(16)       | 인보길(16)    |            |
| 이형균(16)                    | 이흥기(16)                 | 이흥우(16)       | 인보길(16)    |            |
| 장석훈(85세까지 전액 납부)           | 전의식(15,16)              | 정두진(16)       | 정용기(16)    |            |
| 정형수(16)                    | 조천웅(16)                 | 천승준(14,15,16) | 한경석(14,15) | 한중광(15,16) |
| 함정훈(15)                    | 호천웅(16)                 | 홍순일(16)       | 홍승국(14,15) | 황선용(15)    |
| 황우권(16,17)                 | 황원갑(14,15, 16)          |               |            |            |

#### <찬조금>

이석희 200,000

### ◀ 주 소 변 경 ▶

강진형 회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솔밭 2길 29, 3층 (우)10560  
권대웅 회우= 경기 양주시 고덕로139번길 46-146(덕계동 33-3) (우)11460  
김지용 회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72길 7 (청담동 5-14호)  
안홍열 회우=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19 707동 903호(노량진 신동아리버파크) (우)06920  
양성목 회우=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53길 8 (상도동 래미안상도3차아파트) 301동 1402호 (우)06977

## 사우회 소식

### 동우회보 46호 발행

#### 동아일보

지난 1월 22일자로 동우회보 46호를 발행했다. ‘동우회 새 체제 출범’ 머리기사와 화보를 곁들인 이번호는 타블로이드 16면에 다양한 소식이 실렸다. 조강환 동우회회장 취임사(2면), ‘2015 정기총회 겸 송년회 스케치’(3면), 새 집행부 인사(4면), 남시욱 본회 회우의 ‘고 이만섭 동우’ 추모글(5면), 정구종 본회 회우의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의거 80년’(7면), 산클럽(8면), 동우 사진클럽(9면), 최명우 본보 편집위원의 ‘클래식 산책’(11면) 등 많은 읽을거리가 눈길을 끈다. 한편 동우회 새 집행부에는 정구종 박기정 안평선 본회 회우가 부회장으로, 이병대 본회 회장은 감사로, 문준호 성낙오 신광연 이문조 이흥우 조천웅 최명우 황유성 회우는 이사로 위촉됐다.

### 사우회보 20호 발행

#### 중앙매스컴

지난해 11월 30일자로 회보 ‘중앙매스컴’ 20호를 발행했다. 1면 머리기사 ‘중앙 50년 사우 한마당’ 소식과 이를 뒷받침한 특집 화보(3면), 길사랑, 이목희 중앙그린회, 동부회 J-FM, J 포토, 큐 사랑, ‘YOUNG 77회’ 등 다양한 동호인 모임 등이 소개됐다.

### 한우회보 17호 발행

#### 한국일보

지난해 12월 11일 한우회보 제17호를 발행했다.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의 송구영신 메시지, 천관우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생전이야기, 최정호 전 논설위원(견습 2기)의 ‘중학동 시대’와 근황 등이 실렸다. 이재승 본회 회우의 월남 기동특과원 수기가 눈에 띄고 창간 보급소장 이근안씨의 근황, 박실 본회 회우의 ‘6·25 한국전쟁과 중공군’ 특강내용이 흥미롭다.

### 사우회보 65호 발행

#### KBS

지난 1월 1일자로 사우회보 65호를 발행했다. ‘희망 2016을 다짐한 송구영신의 한마당’ 제하의 머리기사를 비롯, 전봉찬 사우회장의 새해 인사(2면), KBS사우회 전봉찬 회장에게 듣는 2016 설계(6~7면), 2015 KBS사우회 송년의 밤 소식(9면)이 사진과 함께 소상히 실려 있다.

### 사우회보 33호 발행

#### MBC

지난 1월 15일자로 사우회보 33호를 발행했다. 1면 김수량 사우회장과 안광한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의 신년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헬기중계 기’(4면) 등이 돋보인다.

## 언론가 소식

### 언론진흥재단 ‘인권경영헌장’ 선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차별 없는 조직문화정착을 위한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했다. 이 헌장에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존중, 인권침해 사전예방노력, 이해관계자 차별금지 등 9개항의 실천과제가 들어있다.

### 뉴데일리 사옥 이전

뉴데일리와 시장 경제신문(대표 인보길·본회 부회장) 사옥이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3층으로 옮겼다.

### 김교준 중앙일보 발행인

중앙일보는 지난 12월 3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교준 중앙일보 부발행인 겸 편집인(57)을 신임 발행인으로 선임했다.

### 회우경조사

#### 부 음

고학용 회우= 1월 19일 부인상,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김두호 회우= 1월 29일 모친상,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이우진 회우= 1월 12일 모친상, 여수 여천전남병원 장례식장  
신성순 회우= 1월 3일 부친상,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정용기 회우= 1월 15일 부인상, 명지병원 장례식장

##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경제는 어른의 꿈이 자라는 곳이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고, 청소년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뛹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경제라는 큰 세계에서 뛹니다.

경제라는 놀이터에는 신기한 일도 많고 놀라운 일들도 가득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른들이 꿈을 꾸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경제를 보는 균형 잡힌 시선을 배우며,

그속에서 새로운 꿈과 기회를 찾고, 성공의 열쇠를 발견하니까요.

그렇기에 한국경제신문은 어른의 꿈을 책임진다는 소명감으로

기사 하나하나에 더 나은 통찰과 비전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꿈이 자라는 신문  
**한국경제신문**



100년명품 동아일보  
1920-2020

# 신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풍요로워집니다, 동아일보**

100년 언론 동아일보가 다음 100년을 준비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꼭 필요한 것만 전달해주는 신문  
생활의 지혜와 문화의 다채로움, 경제의 흐름까지  
읽을 맛이 나는 기사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동아일보**

대한민국 대표언론 동아일보

 동아일보

 CHANNEL A

 스포츠동아

 어린이동아

 PASS

 新東亞

 주간동아

 이시생동아

 DBR

 Harvard Business Review

 과학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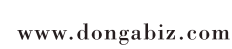
 어린이 과학동아

 수학동아

 시사 원정대

 dongA.com

 ichannelA.com

 www.dongabiz.com